

## 지역 유대감-충성도 낮고 이직률 잦아...

공직열풍 시군 9급 공무원 '타향 출신' 점령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으로 지역 9급 대도시 청년들로 가득 기반 없어 결혼등으로 직장 떠나 새인력 뽑을때까지 업무 공백도

“요즘은 중고등학교 지역 후배 공무원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졌다. 공무원 직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부 잘하는 외지사람들이 시군공무원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 같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25년째 일하는 수원지역 출신 공무원 이모(52)씨는 “후배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후련 아닌 후련을 늘어놓았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지역 출신들

이 차지했던 시군 9급 공무원을 이제는 서울 등 대도시 타지 젊은이들이 채우고 있다. 실제 수원시의 최근 2년간 9급 공채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출신 합격자 수가 가장 많다. 2014년도 수원시 9급 공채 공무원 172명 가운데 수원지역 출신은 14명(8.1%)이다. 서울 출신이 33명(1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20명(11.6%), 전라북도가 수원시와 같은 14명을 차지했다. 이듬해인 2015년에도 211명의 합격자 가운데 서울 출신이 28명(13.2%)으로 가장 많다. 전라북도(22명·10.3%)와 충청남도(19명·8.9%)에 이어 수원 출신(18명·8.4%)이 4번째로 적었다. 지난해 9급 공채에 합격해 올 3월부터 수원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전모(28)씨는 안성이 고향이지만 대학교는 서울에서 다녔다. 그는 “주위에서 보면 저 같은 외지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온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수원이 들어오면 신기해한다”면서 “지역 출신 공무원이 지금은 더 희귀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주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4년도 신규 채용 9급 공무원 67명 가운데 15명이 여주 출신이고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52명이 타지역에서 왔다. 2015년에도 70명 합격자 가운데 여주 출신은 24명이고 46명은 타지역 출신으로 나타났다. 여주시 최희수 인사팀장은 “은퇴를 앞둔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 공무원들은 거의 다 여주지역 출신자들이었다”면서 “지금은 외지사람 유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출신 공무원 감소 현상에 대해 시군은 우려가 크다. ‘지역색’을 따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군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져 서울이나 중앙 부처 등 더 좋은 곳을 찾아 중간에 떠나가는 이탈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지역에 정서적, 경제적 기반이 없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나온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 초 임용된 9급 공무원 가운데 1명은 서울시로 전출했고, 1명은 결혼 때문에 수원시를 떠났다. 이럴 경우 남은 공무원들이 빠져나간 공무원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불만이 높다. 그렇다고 중간에 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새로운 인력을 선발할 때까지 꼬박 1년간 업무 공백을 매워야 한다. 이천시시의 경우 2014년 9명의 신규 채용 공무원이 두 달여 만에 그만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 가버렸다. 의정부시도 2014년도에 채용된 신규 공무원 55명 가운데 15명이 서울시로 이직했다. 경기도 시군과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이종으로 합격한 뒤 ‘큰물(?)’인 서울시로 갈아타는 것이다. 경기도 시군 합격자 발표 3개월 후인 12월 초순에 서울시 공무원 합격이 발표되면서 시군에 2달 정도 잠시 일하다가 서울시에 합격하면 주저 없이 서울로 옮겨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은 최종 합격자의 15~20%가 이직할 것에 대비해 그만큼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여주시 최희수 인사팀장은 “외지사람이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오니까 실력 면에서 일을 잘할 수는 있지만, 여주시가 최종 목적이 아닌 경우 금방 떠나간다”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주시에 오래 남아있을 지역 출신을 공무원으로 뽑는 게 더 낫다”고 하소연했다. /연합뉴스

## “EU 인턴 8천명중 절반 이상 무급으로 일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 EU 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젊은이 8천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7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근무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유엔과 함께 ‘꿈의 무대’로 불리는 EU에서조차 젊은이들의 ‘열정페이’(무급 또는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회에서 수면 연

수생으로 일했고, 지금은 유럽의회연수생협회의 ‘공정한 인턴십 소위원회’ 멤버라고 자신을 밝힌 엘리노르 셀리에에는 이날 EU 관련 전문 매체인 EU옵서버에 투고한 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셀리에에는 “브뤼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 무급노동이 새로운 노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뤼셀 인턴 NGO’는 매년 8천 명 이상의 청년들이 ‘EU 버블(거품)’이라고 불리는 브뤼셀의 인턴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무급으로 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기구들은 매월 1천 유로~1천 250유로에 달하는 재정적 보상과 건강보험, 교통비 등의 조건을 내걸고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인턴 자리를 놓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미래 외교관들에게 꿈의 무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  
유급 인턴십은 ‘바늘구멍 경쟁’ 벌여

집행위의 대표적 인턴 채용 프로그램인 ‘블루 북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1년에 2만, 600명씩 채용하는데, 2만5천 명 이상이 지원해 말 그대로 ‘바늘구멍 경쟁’을 벌인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채용되지 못한 젊은이들 가

운데 EU 기구에서 일하기를 원해서 무급 연수생으로 채용된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하며 심지어 EU 관리들조차 이런 문제를 모른다고 셀리에에는 밝혔다.

유럽의회의 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턴 가운데도 무급 인턴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특히, 의원이 인턴의 월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는 인턴들이 속출한다는 게 셀리에의 주장이다.

지난 7월 13일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의회 연수생들과의 면담에서 “보좌진들의 월급으로 2만2천 유로를 받는 의원들이 여전히 무급 인턴들을 고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이언 시몬 유럽의회 의원이 지난달 집행위에 무급 인턴 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결과,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집행위가 전체 인턴의 4분의 1인 200명 이상의 무급 인턴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EU 대외관계청(EEAS)의 경우 제3국에 있는 약 140개 대표단이 매년 400명 이상을 무급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EU에서 무급 인턴이 늘어나는 등 ‘열정페이’가 이어지자 지난 6월 유럽의회와 집행위에서 일하는 인턴들이 회의를 열고 EU 기구의 무급 인턴 문제를 협의, 하반기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셀리에에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세계기구 EU도 ‘열정페이’ 횡행



## 이력서 사진 하나에도 불안한 취준생들

온라인 취업정보 카페에 사진 올려 공개적으로 스펙 등 댓글로 평가해

“○○○직 지원했습니다. 이력서 사진 평가 부탁드립니다.” “안경 쓴 거랑 안 쓴 것 중 뭘 내는 게 좋을까요.” “배경 좀 골라주세요.”...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취업정보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질문과 사진을 올리는 이들은 취준생들이다. 답변자들 역시 주로 이 카페를 방문하는 취준생들이다.

질문자들은 자신이 입사 지원서(이력서)에 제출할 사진을 올리고 간단한 질문을 적는다. 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나 기업을 적고 인상평을 묻는다. 이름과 학력, 나이 등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답은 다양하다. “좋다”, “멋지다”는 의견도 많지만 “배경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안경알이 조금 더 작은 게 좋겠어요”, “얇머리면 조금 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타이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등 구체적인 조언이 올라온다.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공개적으로 평가받는 일이 제법 민감하게 여겨질 법하지만, 불안한 취준생들은 이렇게 질문과 답을 주고 받는다.

사진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펙’ 평가를 부탁하기도 한다. 학교와 전공, 학점, 어학 점수, 경력사항 등과 희망 기업과 직무를 올리고 댓글로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진 촬영에만 적게는 1만원 내외,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포토샵을 이용한 보정 후 후처리 작업도 필요하다.

이와 맞물려 메이크업 실과 메이크업 아카데미까지 갖춘 면접사진 전문 스튜디오들도 성업 중이다.

한 취업준비생은 “인사담당자에게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지나친 보정은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하니 외모로 호감을 살 수 있

는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변에 묻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6곳은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이인 지난 3월 7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4%는 입사지원서에 사진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 66.6%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다른 조사에서 인사담당자의 62.8%는 ‘채용 시 지원자의 외모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8일 “미국과 호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이력서상 사진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공기업 경우에도 90% 이상이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취업 플러스

### 제조업 고용 증가폭 2009년 이후 최저

국내 고용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고용 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자, 조선, 철강 등에서 고용이 많이 줄어들어 고용 증가 폭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상시근로자 고용보합 피보합자(취업자) 수는 1천253만 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5천명(2.9%)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으로 증가율이 13.9%에 달했다. 이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도·소매업(5.8%) 순으로 높았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모든 업종 중 임금이가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으로 증가율이 0.5%에 그쳤다. 이는 6월 증가율(0.7%)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전체 업종 중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도 증가율이 0.5%에 그쳤다. 고용 증가 폭은 1만 6천명으로 2009년 11월(6천3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고용의 14.4%를 차지하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는 7월 고용규모가 2만 1천명이나 감소했다. 2013년 9월 고용규모가 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감소해 올해 7월 고용규모는 51만 3천명에 그쳤다. 이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견디다 못해 국내 전자업체들이 휴대전화, LCD 등 생산기지를 해외로 신속 이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 LG 등 IT 분야 대기업은 국내에서의 생산을 점차 줄이는 대신 중국, 베트남 등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추세다. 세계 시장의 IT 제품 수요 증가세가 점차 둔화해 수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청년희망재단 출범 후 561명 취업 성공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0월 19일 출범 후 재단 지원으로 561명의 청년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구직자 모두에게 서류전형 없이 면접의 기회를 주는 ‘온라인기업 채용박람회’에는 72개 기업이 참여해 251명의 청년 인재를 선발했다.

일일약품을 시작으로 예문스가구, 삼화콘텐츠, 엔에프씨 등 중견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했다. 신한은행, 하림홀딩스 등 대기업도 온라인 채용박람회로 직원을 선발했다.

청년 인재가 신생벤처기업에서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생벤처기업-청년인재 매칭 사업’으로는 107명의 청년이 일 자리를 찾았다.

기업과 사전에 채용을 약정해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인재 양성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과 협약해 중국 관광객 대상 ‘청년관광통역안내사’를 키우는 과정은 1기 수료생 25명 전원이 취업했다. 현재 2기 교육생 26명이 이달부터 총 6개월간의 교육 및 인턴과정에 참여하고 있다.